



체코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,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〈보도 주요내용〉

- 10.24.(목), 뉴시스는 「한전, 3월 UAE 바라카 1.2조 ‘대출 청구서’ 날아 온다...자금조달 ‘막막’」에서 체코 원전 건설 등 해외 수주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〉

-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, 현재까지 체코 측으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음
- 만일, 체코에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건하에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는 무관함

담당 부서	원전수출협력과	책임자	과 장	문준선 (044-203-5280)
		담당자	사무관	조기훈 (044-203-5281)

